"인구 감소폭 매년 줄어… 전남 미래 희망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신년 인터뷰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 등 전남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며 "올해는 10년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도정을 잘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퇴임후에도 전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후임 전남지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긍정적 에너지로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

-오는 6월이면 3선 임기가 끝난다. 지난 10년간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취임 초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낙후의 상징인 전남의 인구가 매년 3만6000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의 운명을 바꿔 후손들이 잘사는 전남을 물려주자는 생각으로 지사직을 수행했다.

그 바탕은 해안선과 섬, 갯벌 등 무궁무진한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이었고 이를 활용해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및 은퇴도시 조성 등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3만명 가량 줄던 인구 감소폭이 지난해에는 2446명으로 줄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전남의 미래를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일은 4년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올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적자를 이유로 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는 큰 시각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 가져다 준 파급효과를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올해 1년을 쉬는 F1대회가 내년에 다시 열릴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적자의 원인인 개최권료를 더 깍으려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대회 주관사측과

민주당이 安風 원인 제공

퇴임이후에도 도민위해 봉사

차기 지사 통합 리더십 필요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잠시 쉬었다 다시 개최하는 사례도 많아 내년 개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초부터 전략적으로 개최권료 협상을 진행해 적정수준으로 개최권료를 낮추고 정부를 설득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다면 F1의 지속 개최가 가능하다.

올해 대회를 쉬더라도 F1경주장은 이미 임대를 통해 연간 250일 가량 활용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정치 얘기를 하자. 호남에서 안철수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보나

▲안철수씨가 정식으로 신당을 창당하지

도 않았고 외교, 정치, 지역문제 등에서 구체적인 공약(콘텐츠)를 내놓지 않아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안철수 바람의 원인 제공이 민주당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중도인데 그동안 너무 좌 편향으로 치우치다보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이 틈새를 안철수측에서 파고 든 것이다.

예를들어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정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공당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행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룰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갖고 진중하게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

-전남발전을 위해 후임 지사가 갖춰야 할 덕목은 있다면.

▲전남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낙후돼 있고 인구 감소에 고령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따라서 비전을 제시하는 넓을 시각을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중요하다. 또한 공정한 룰을 정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인사와 예산이 대표적이다.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분열돼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특성이 있는만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통합을 이끌어 내는 에너지를 갖춘 리더십도 필요하다.

-퇴임후 계획이 있다면.

▲10년을 달려왔다. 일단은 자연인 박준영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 전남에 거주하면서 조그만 텃밭을 갖춘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10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온 것은 개인적으로 행운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도민들이 안겨준 '3선 전남지사'라는 타이틀이 무거운 책무로 다가오기도 한다. 퇴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전남도와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겠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왜 진도아리랑을 빼버렸는가

2013년의 마지막 날 밤 자정, 나는 보신각에서 울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텔레비전을 통해 듣고 싶었다. 보신각 쇠북의 타종을 나는 해마다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해 왔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듣는 그 장중한 타종소리는 가슴을 서늘하게 울리곤 한다.

여느 때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버리곤 한 나는 밀려드는 잠을 쫓으며, KBS의 '아리랑 코리아'를 시청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나는 무척 감격스러워한다. 나는 이 날 밤, 무엇보다 유명한 소리꾼들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의 신명에 젖어들고 싶었다.

아주 기나긴 이런저런 노래가 흘러간 다음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정선아리랑이 불려지고, 다음 밀양아리랑이 불려지고, 이어 상주아리랑과 해주아리랑이 불려졌다.

그런 다음, 출연진 모두가 나서서 아리랑(나운규의 영화의 '아리랑')을 부르고는 끝 자막이 나타났다.

나는 속에서 울화라 치밀었다. 왜 진도아리랑을 빼버렸을까.

한국의 삼대 아리랑은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이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그것들이 불리었었다.

한데 나운규의 '아리랑'이 나오고, 그것이 3년 동안이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상연되면서 그 '아리랑'은 민족적인 슬픔과 저항의 정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아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만주 간도로 떠나고, 징용·징병으로 이끌려 일본으로, 혹은 세계 각처로 흘러갔다. 그들은 고국 땅이 그립고, 이국에서의 타향살이가 서러우면 그 노래를 애국가처럼 불렀다.

'정선아리랑'은 긴 사설을 빠른 가락으로 촘촘히 엮어가다가 뒷부분에서 높은 소리로 한 가락을 길게 빼는, 비탄애수적인 민요인데 가락은 메나리조이다.

굽이굽이 빠르게 흐르는 북한강의 여울물을 연상하게 하는 이것은 강원도 지방에서만 불리다가 근대의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밀양아리랑'은 세마치 장단의 경쾌하면서 씩씩한 민요이다.

'정든 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곡조가 단조로운 이 민요는 경상도 일원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진도아리랑'은 사랑과 이별이 주제이지만, 집단 노동요로서 선소리 매김의 돌림노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전라도의 음악 토리로 되어 있다.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이라는 세 부분의 음을 뼈대로 하여 음계가 구성되고, 발성법이나 가사 발음법도 그런 음들을 잘 표현하도록 발달돼 있다. 세마치 장단이지만 빨리 부를 때는 중머리 장단이 된다.

육자백이 가락에 관소리의 구성진 목청이 어우러진 진도지방 특유의 정조가 특징이다. 에로틱한 '콧소리 사용'이 또 하나의 특징인 진도아리랑은 합창을 할 때 흥과 신명을 고양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KBS에서는 '아리랑 코리아'에 별로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는 '상주아리랑' '해주아리랑'을 넣으면서 '진도아리랑'을 빼버린 것이다.

피해망상이라고 나를 꾸짖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라도 문화의 소외시키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불쾌해진 나는 참을성 있게 보신각의 타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데 여기서도 묘한 현상이 일어났다. 보신각의 장중한 쇠북 소리가 한 차례씩 울려 퍼지는 동안, 보신각 주변에 모여든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사이에 부산지방의 타종 모습, 대구지방의 타종 모습, 전주지방의 타종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광주지방의 타종 모습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나는 이날 밤, 공영방송 KBS가 의도적으로 '진도 아리랑'과 광주를 빼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불편한 밤을 보냈는데, 이것이 나의 옹졸함인지 KBS 당국에 묻고 싶다. 〈소설가〉

"민주 광주시장 경선 투명·공정해야"

강운태 시장, 전략공천 일축

U대회 단일팀 남북 접촉중

강운태 광주시장〈사진〉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진정한 공천혁명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략공천 주장을 일축했다.

강 시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용섭 국회의원이 전략공천을 거론한 데 대해 "전략공천은 밀실공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 의원의 (말) 실수 수준이지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전략공천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광주 민주당 회복을 위한 원로모임(광민회)'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략공천 주장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당원과 시민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강 시장은 '차출설' '대안론' 등과 관련해서도 "안철수 신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공천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누가 그런 후보인지는 당원과 시민의 뜻에 따라 공정한 경선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UN과 남북한 당국자 간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리산온천·삼학도복원·섬진강 정비 등

전남도, 올 관광개발사업 1110억 투입

생태환경·독특한 문화자원

지역 거점 관광지로 조성

전남도가 목포 삼학도를 복원하고, 섬진강변을 정비하는 등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110억원을 투입한다.

7일 전남도는 "이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 갯벌 등 자연·생태 환경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거점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 경도, 지리산 온천, 율포 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 등 12개 관광(단)지에 219억원을 투자해 지역 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

목포 삼학도 복원, 곡성 섬진강변 및 강진 월출산권 관광 명소화, 신안 예술의 섬 조성 등 34개 사업에 485억 원을 투자해 휴양 및 체험 공간도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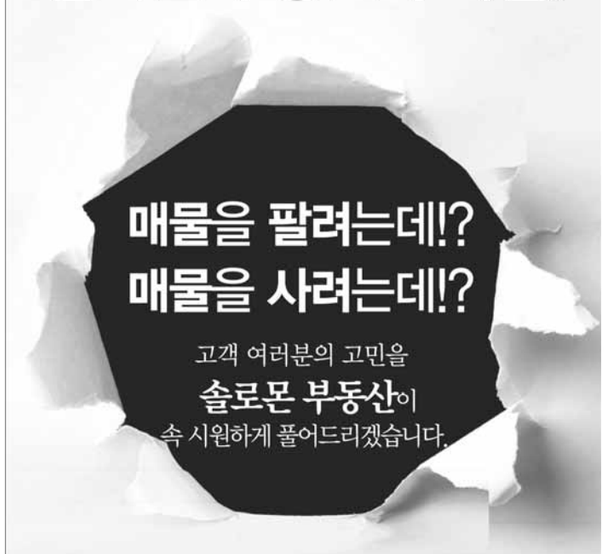
또 섬, 갯벌, 철새, 습지 등 비교우위 생태자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여수 금오도 생태휴양공간, 보성 관광녹차 생태공원, 화순 세량제 생태공원 등 17개 사업에 271억원을 투자한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진도 조도 전망의 섬, 보성 비봉 공룡공원 조성에 50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구례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지리산권 연계사업 등 17개 사업에 84억원을 투입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급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옥·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급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그린벨트 답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동물사육·야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몽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찰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급 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화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